

“테니스에 굿바이”

‘러시안 뷰티’ 사라포바 은퇴...커리어 그랜드슬램 업적

테니스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5차례 우승한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33·러시아·사진)가 은퇴를 발표했다.

샤라포바는 26일(현지시간) 보그와 베니티 페어 잡지에 실린 기사에서 “테니스에 굿바이를 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28년 동안, 다섯 번의 그랜드슬램 타이틀과 함께 나는 이제 다른 지형에서 경쟁하기 위해 또 다른 산을 오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987년생 샤라포바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나 7살 때부터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 테니스를 배웠다.

17살 때인 2004년 윈스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세계 테니스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샤라포바는 이후 2006년 US오픈, 2008년 호주오픈과 2012년, 2014년 프랑스오픈을 제패하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2005년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으며 기량과 빼어난 미모를 겸비해 ‘러시안 뷰티’라는 별명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서 러시아 선수단 기수를 맡은 샤라포바는 그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호주오픈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15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2017년 상반기 복귀한 이후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도핑에 따른 징계를 받고 난 뒤로는 2018년 프랑스오픈 8강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었다.

최근 여객 부상으로 고생한 그는 올해에는 1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과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출전했으나 모두 첫판에서 탈락했다.

특히 현역 시절 ‘양속’으로 유명했던 윌리엄스를 상대로는 2004년 두 차례 맞대결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윌리엄스와 샤라포바의 상대 전적은 윌리엄스가 앞 19연승을 거두는 등 20승 2패로 압도했다.

또 샤라포바는 팬들 앞에서 은퇴 경기를 치르지 않고 코트를 떠나게 됐다. 그의 마지막 경기는 올해 호주오픈 1회전 돈나 베키치(크로아티아)를 상대로 0-2(3-6 4-6)로 패한 것으로 남는다.

당시 샤라포바는 1회전 탈락 이후 “올해가 마지막 호주오픈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잘 모르



겠다”고 답했다.

현재 세계 랭킹 373위까지 내려간 그는 WTA 투어 단식에서 36차례 우승했고, 상금은 3천877만 7천962달러(약 471억원)를 벌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연속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고 사탕 회사인 ‘슈가포바’를 운영하는 등 사업가로서 면모도 보였다.

샤라포바는 보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매일 하던 훈련, 경기를 마친 뒤 하는 약속, 모든 것들이 그리울 것”이라며 “그동안 테니스는 내게 하나의 커다란 산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그 산은 수많은 계곡과 우회도로로 이뤄졌지만, 정상에 올라서 보는 광경은 환상적이었다”고 벌써 테니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적었다.

샤라포바는 “내가 은퇴 후 무엇을 하든, 나의 다음 산이 어디가 되든 여전히 도전하고, 그 산을 오르고,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권순우, 세계 24위 라요비치 제압...나달과 8강 격돌

멕시코오픈 테니스

권순우(76위·CJ 후원)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멕시코오픈(총상금 184만5265달러) 8강에서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을 상대한다.

당진시청 소속 권순우는 27일(한국시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두산 라요비치(24위·세르비아)를 2-0(7-6(7-2) 6-0)으로 제압했다.

최근 4개 대회 연속 8강에 진출한 권순우는 28일 준준결승에서 톱 시드인 나달과 격돌한다. 나달은 2회전에서 미오미르 케츠마노비치(50위·세르비아)를 2-0(6-2 7-5)으로 물리쳤다.

권순우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나달,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 등 남자 테니스의 ‘빅 3’와는 아직 상대한 적이 없다.

권순우는 2월 들어 타타오픈, 뉴욕오픈, 텔레이비치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8강에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ATP 500시리즈인 멕시코오픈은 ATP 250 대회로 열린 앞선 경기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대회다. 권순우가 ATP 500시리즈 8강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순우가 27일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멕시코오픈 2회전에서 두산 라요비치(세르비아)를 상대로 경기를 이겼다. /연합뉴스

8강 진출 상금 5만375달러(약 6100만원)를 받은 권순우는 랭킹 포인트도 90점을 확보했다.

다른 선수들의 이번 주 대회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일단 현재 라이브 랭킹 기준 69위가 되면서 생애 첫 60위대 진입 가능성을 부풀렸다.

이번 대회 8강은 권순우-나달, 스탠 바브링카

(16위·스위스)-그리고르 디미트로프(22위·불가리아), 존 이스너(20위)-토미 폴(66위·이상 미국), 테일러 프리츠(35위·미국)-카일 에드먼드(44위·영국)의 경기가 펼쳐진다.

권순우와 나달의 8강전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후 1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무관중에도 더 뜨거운 여자배구...다음주 순위 윤곽

시즌 종착역을 앞둔 여자 프로배구 상위 팀 순위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현재 선두 현대건설(승점 52·19승 7패), 2위 GS칼텍스(승점 51·17승 8패), 3위 흥국생명(승점 45·13승 13패) 3개 팀의 ‘봄 배구’ 진출이 유력하다. 4위 KGC인삼공사(승점 36·13승 13패)가 흥국생명을 쫓지만, 승점 차가 버겁다.

현대건설이 리베로 김연경의 이탈로 후회거린 사이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 나란히 3연승을 질주하며 선두권 싸움에 불을 지폈다.

결국 라이벌 간의 대결에서 순위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3월 1일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 분수령으로 꼽힌다.

현대건설, 흥국생명보다 1경기를 덜 치른 GS칼텍스는 27일 올 시즌 4승 1패로 앞선 한국도로공사를 꺾으면 1위로 올라선다. 이어 현대건설을 제압하면 여세를 몰아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GS칼텍스에 5세트 접전에서 패하고 26일 흥국생명에마저 0-3으로 진 현대건설은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GS칼텍스에 또 무릎을 꿇으면 남은 3경기를 다 이겨야 1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는다. 현대건설이 이기면 GS칼텍스와의 선두 경쟁은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에이스 이재영의 복귀 후 가파른 상승세를 탄 흥국생명은 3월 3일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승점 3을 수확하면 봄 배구 막자 경쟁을 끝낼 기회를 얻는다.

순위 경쟁의 또 다른 열쇠는 ‘봄 배구’ 희합을 끝까지 이어가는 KGC인삼공사가 쥐고 있다.

감독대행에서 정식 사령탑으로 승격된 이영택 감독이 이끄는 KGC인삼공사는 5라운드에서 4승 1패를 거둬 급반등했다. 공수에서 짜임새가 개선된 KGC인삼공사가 3월 3일 흥국생명, 3월 7일 GS칼텍스를 차례로 따돌린다면 상위권 경쟁은 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선수 이탈...프로농구 순위싸움 ‘코로나 변수’

kt 더햄, 건강 우려 미국 돌아가기로

프로농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코로나19가 정규리그 막바지 순위 경쟁에 변수로 떠올랐다.

KBL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26일부터 ‘무관중 경기’를 시행 중이다.

25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무관중 경기 시행이 확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관중이 없는 경기장 분위기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6일 부산 kt의 열린 더햄이 건강에 대한 우

려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더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kt는 더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됐다. 27일 서울 SK와 원정 경기를 치르는 kt는 29일 전주 KCC, 3월 1일 울산 현대모비스 등과 연전을 치른다. 잔여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즌 막판에는 원래 ‘대타 외국인 선수’를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 ‘한국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생긴 상황이라 kt로서는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승 20패로 공동 5위인 kt는 7위 현대모비스

(18승 23패)에 3경기를 앞서 있지만 남은 경기에서 빼앗으면 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

외국인 선수 비중이 높은 리그 특성상 ‘제2의 더햄’이 나올 경우 해당 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국내 선수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26일 현대모비스와 홈 경기에서 승리한 고양 오리온 허일영은 기자회견에서 “집에 아기도 있어서 가족들 건강이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국내 프로 종목 가운데 가장 먼저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최근 리그 중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프로농구 모두 리그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코로나19가 정규리그 행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2월29일(토)

▲광주호산회 2월29일(토) 완도 상황봉, 06:30 팜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3월1일(일)

▲광주전남산악회 3월1일(일) 고창 선운사 보은길, 웰드컵주차장 07:00, 운진각앞, 양동시장, 광주역 07:30, 무암동 홀플러스 07:40, 농산물공판장 앞 07:45 ※다음카페 광주전남산악회 ☎ 010 7148 5744, 010 3633 5449

▲광주산악회 3월1일(일) 강진 만덕산 산행 및 시산제, 모아레포츠 06:30, 금호지구대 06:35, 무가사 06:40, 시정건너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음카페 : 광주산악회 ☎

010 3603 7718

▲한길산악회 3월1일(일) 광양 쫓비산 & 백운산 산행, 상무정 07:00 무가사 07:10 광주역 (e-마트 편의점앞)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각화동농산물공판장 07:40 ※다음카페 :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3월4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4일(수) 경남 통영 사랑도 칠현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20, 교직원공제회관 06:30, 예술회관후문 06:40, 각화동 현대물류앞 06:5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3월8일(일)

▲광주kj산악회 3월8일(일) 여수 화정면 백야도 “백호산282.5” 돌레길 산행&고흥 팔영대교, 적금대교, 낭도, 둔병도, 조병도, 여수 화정면까지 6개대교, 영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앞 07:35, 롯데백점 07:45, 광주역 07:50, 문예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산사모산악회 3월8일(일) 영남 알프스 가시산-운문산(울산,경남), 영주 모아레포츠 입구 05:10, 상무 무가사 05:20, 광주시의회 05:25, 운남 21세기병원 05:35, 수안 지하도위 승강장 05:40분,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5:50, 비엔날레주차장 안 06:00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최화신(390515-XXXXXX)
- 최후주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명랑로 951-8 (옥동리)

피상속인 망 최화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년2월26일 신청하여 2020년 2월 20일 심판 인용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2월 28일

- 상속인 : 정선학(710120-XXXXXX) 전남 해남군 황산면 명랑로 951-8 (옥동리)
- 신고기간 : 2020. 2. 28. - 2020. 5. 8.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정선학의 주소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자연보전당사회 3월 8일(일) 토곡산(경남 양산), 영주체육관 05:40, 무등경기장 06:00, 동광주홀플러스 06: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당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신정열(640908-XXXXXX)
- 최후주소 : 목포시 상동로 64, 304동 908호 (상동, 상동3.4단지 아파트)
- 등록기준지 : 목포시 죽교동 43-1

피상속인 망 신정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년2월19일 신청하여 2020년 2월 25일 심판 인용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2월 28일

- 상속인 : 1. 신현명(950815-XXXXXX) 2. 신승범(970303-XXXXXX) - 상속인 1, 2의 주소
- 목포시 인산로47번길 3-1(산정동)
- 신고기간 : 2020. 2. 28. - 2020. 5. 8.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신현명의 주소

3월1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11일(수) 전북 부안 우금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일광이앤지(이하 “갑”)와 주식회사 태성건설(이하 “을”)은 2020년 02월 27일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 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분할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이하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업종 : 전기공사업(광주-0083호)
2. 분할합병 예정일 : 2020년 03월 31일
3. 의견제출처 : 양도자(갑) 및 양수자(을) 사무실 2020년 02월 28일

양도자(승계인 - 분할회사 “갑”)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순천로143번길 28-5(월전동)
상 호 : 주식회사 일광이앤지
사내이사 : 최재홍
양수자(승계인 - 분할합병회사 “을”)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대로11번길 66
상 호 : 주식회사 태성건설
대표이사 : 문정숙

3월1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18일(수) 전남 광양 쫓비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도단251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최강선

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년 2월 27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정희철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지푸리끼리도 잡고 싶은 짐승들
2관 정직한 후보
3관 지푸리끼리도 잡고 싶은 짐승들
4관 정직한 후보
5관 인비저블맨
6관 인비저블맨
9관 전블맨, 1917
7관 씨네카를 클로젯
8관 씨네카를 전블맨, 작은 아씨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 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
4,7(화) 11:00, 14: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영화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엠마뉴엘 체르나보라얀 바이올린 리사이틀
4,9(목) 19: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회향연화: 강남구 초대전
GAC 기획전시 회향연화: 강남구 초대전
3.27(금) ~ 5.10(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